

'파란만장' 조영남, 논란 딛고 자신의 길을 걷는다

조영남은 어린 시절 14후퇴 피난 행렬에 섞여 황해도 평산군에서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이주했다. 이후 음악에 소질을 보이면서 전액 장학생으로 1962년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했지만 이내 자퇴했다.

이유는 독특하다. 약혼자가 있던 여학생과 스캔들 때문이었다. 학교에 소문이 퍼져 약혼자 부모가 학교를 찾아왔고 교무처장은 조영남에게 "사랑을 택할래? 등록금을 받을래?"물었고 결국 그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시 급하게 공부해 196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해 재학 중인 1968년부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8군 부대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며 받는 월급이 쓸쓸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또한 자퇴했다.

이후 음악감상실 '세시봉'을 무대로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등과 함께 활동하며



상지리초빌카일빌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8-18

1970년대 한국 포크 음악을 주도했다.

영국 가수 톰 존스의 '델라일라(Delilah)'를 한글로 개사해 부른 곡으로 1969년 TBC TV 버라이어티 쇼 '쇼쇼쇼' 방송에 데뷔했다.

데뷔 초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지만 여러

가지 기행으로 보는 사람들을 불편케 했다. 대표적으로 '와우아파트 노래 개사 사건'이 있다.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는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에 지은 와우시민아파트 15동 중 1동이 입주한 지 20여 일 만에 부실공사로 무너져 30여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에게도 시련이 닥친다. 1970년 5월 22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김시스터즈 귀국 공연의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불렀을 때였다.

'신고산 타령'의 가사를 즉석에서 바꿔 '와우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 얼떨결에 깔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누나'로 개사해 불렀다.

노래가 끝난 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재빨리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잡혀 새벽에

홍성 법원으로 끌려갔다. 구속 위기에서 다행히 자진 군 입대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역하고 1974년 미국 가수 알 윌슨의 노래 'The Snake'를 번안해 부른 '최진사택 셋째딸'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세시봉에서 만난 배우 윤여정과 결혼했다. 하지만 수차례 불륜으로 논란을 일으켜 이혼했다. 이후 18살 연하의 동거녀 백은실과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을 담은 '화개장터'로 전성기를 맞았다. 이외에도 '모란동백' '옛 생각' '인생은 미완성' '제비' '애모의 노래' 등 많은 곡을 냈다.

1996년 한국방송대상 가수상, 1999년 제11회 인간상특수 표창, 2010년 MBC 연기대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가수 외에도 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화투'와 '바둑'을 소재로 그리며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화가로도 성공했

다. 20호 그림은 1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그림에 빠져 살 때도 또 한번 시련이 닥쳤다. 조수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대작(代作)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가중됐다.

당시 조영남은 "100% 자신의 창의력으로 그린 것이다"며 "간헐적으로 일부 작품에서 A

씨가 참여하긴 했지만 도움을 받은 작품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훗날 대작 그림 판매 사건은 4년이 넘는 3심외 법정 공방 끝에 2020년 6월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해 9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송아학당'으로 방송에 복귀했으며 지난해 '조영남 50주년 기념 전국투어 음악회' 오프 '조영남과 세시봉'에서 공연은 물론 '조영남 50th' '저 높은



가수·화가 조영남. 뉴스시스

곳을 향하여' 등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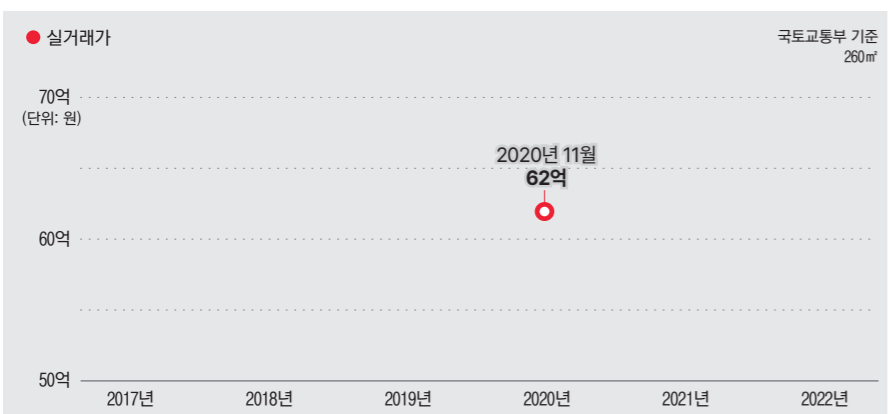
또한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조영남 : 조영남입니다.' 등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들을 선보여 '화가 조영남'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여러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조영남의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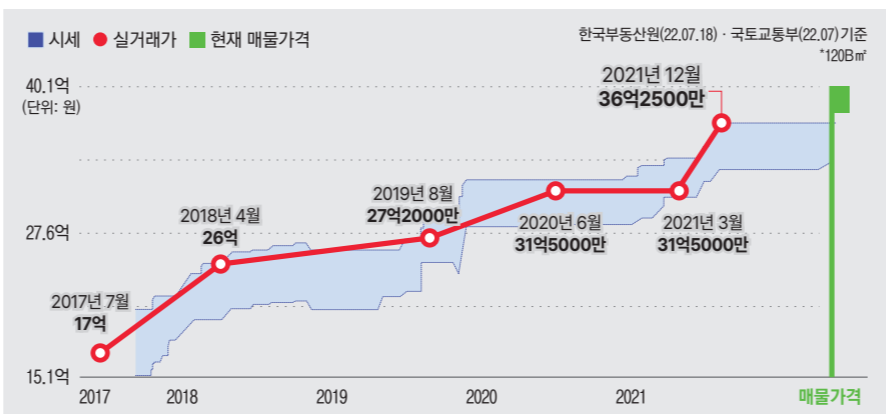
효성빌라청담10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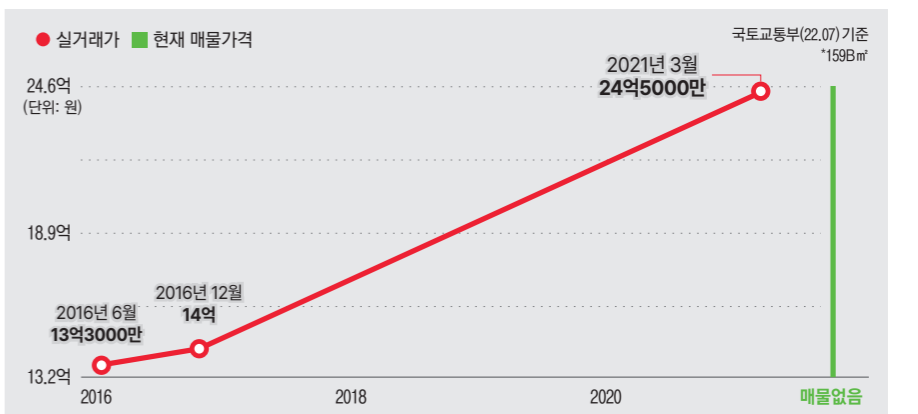
청담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38



청담대우엠스카운티7차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0-3



유희열

현작곡가·가수



생활음악' 프로젝트 중 지난해 9월 공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피아니스트 겸 영화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 하차한 이유다.



노영석

현한양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 건설과 관련해 "건설은 완치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관절염,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상

현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회 집행위원장, 국가안정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지냈다. 2002년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포럼에서 학계분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안쓰는 땅 도민에게 빌려준다... 55만8491㎡ 규모

경기도

경기도는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도에 있어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도는 대부 가능한 총 446필지(55만8491㎡)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중 318필지(32만938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이며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하면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다르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경기공유서비스.

기도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현 기자 djhung@skyedaily.com

대구국가산단 2단계 산업용지 22만3000㎡ 공급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5일부터 달성군 구지면 소재 대구국가산단 단지 2단계 산업용지 14필지(약 22만3000㎡)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장 신·증설 투자를 위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역내의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총 14필지 22만2937㎡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2필지 9만9378㎡, 기초산업 업종 12필지 12만3599㎡이다.

이번 산업용지 입주신청은 8월8일부터 9일까지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받으며 시는 경영, 기술, 회계,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단단지 입주기업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입주업체는 8월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LH



대구국가산단단지 조감도.

대구시

토지청약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대구국가산단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전체면적 855만9000㎡(산업용지 491만1000㎡)로 단계별로 조성해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했다. 현재 약 140여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이며 2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다.

대구국가산단단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종IC와 대구도심과 연결하는 직선 4차선 도로가 있다. 여기에 대구산업선철도 개설 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산업단지 등 인근에 핵심 부품 강소기업이 밀집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첨단산업입지로서 구미의 정보기술(IT), 창원외기계산업, 대구 도심산단의 부품소재산업과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선도하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종화 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국가산단단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jhung@skyedaily.com